‖ *성균중국연구소 특별리포트*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분석
"시진핑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해석"

2021.11.12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19기 6중전회 분석

1. 6중전회 '공보(公报)' 분석

- 공보의 주요 내용은 중국공산당의 지난 100년(1920-2020)을 역사적으로 총결하고 다음 100년의 역사적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

① 지난 100년 중 첫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와 '사회주의 혁명 및 건설 시기'는 마오쩌둥이라는 지도자와 마오쩌둥 사상이라는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마오쩌둥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적 맥락에 따라 창조적으로 변용·발전시킨 결과물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님. ➡ 일어서기 시작한 시기(站起来)

② 지난 100년 중 두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개혁개방' 시기는 발전의 물질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실사구시적 국가운영에 나선 시기로, '중국특색사회주의' 개념을 새롭게 확립한 시기 ➡ 부유해지기 시작한 시기(富起来)

③ 지난 100년의 세 번째 시기는 바로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른 18차 당대회 이후, 개혁개방 이래 목표로 해 온 '전면적 소강사회'를 실현했고 국가운영의 전 방면에서 큰 성과를 얻어 왔으며, 이제 지난 100년을 마무리하고 다음 100년으로 넘어갈 시점. 다음 100년은 바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역사적 단계가 될 것 ➡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强起来)

-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이 주창해 온 **4개 의식(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 등), 4개 자신(경로자신, 이론자신, 제도자신, 문화자신 등)**이 반복적이고 폭넓게 언급되고 있으며, 그 지향점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로 모아짐
- 19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공보 가운데 이번 6차 전체회의 공보가 가장 많은 분량.

  - 2중전회(3600자), 3중전회(3400자), 4중전회(5700자), 5중전회(6100자), 6중전회(7400자)

- 시진핑이 공보에 총 17회 등장하여 금번 6중전회의 주인공이 시진핑이라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2. 6중전회의 핵심: '역사결의' 선포

- 19기 6중전회는 다음 두 가지 중대 문건을 통과시켰음. <'백년분투'의 중대한 성취 및 역사경험에 관한 결의>《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 <제20차 당대회 소집에 관한 결의>《关于召开党的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的决议》.

- 이 중 전자의 문건 <'백년분투'의 중대한 성취 및 역사경험에 관한 결의>(이하 <결의>)는 6중 전회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음.

  "19기 6중전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결의>의 심의 및 통과" (중앙위원회 11.12 기자회견)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역사상 **'역사결의'가 채택된 것은 두 번**에 불과함. 첫 번째 역사결의는 1945년 6기 7중전회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 등장한 것으로,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마오쩌둥의 핵심적 지위를 대내외에 공표한 중대 변곡점**임.

- 두 번째 역사결의는 11기 6중전회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 문건에 등장하였으며, 마오쩌둥의 역사적 지위와 사상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문화대혁명을 철저히 부정"하며 전대 지도자의 공과 과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는 **중국 정치경제의 실사구시적 대전환의 변곡점**이 됨

- 따라서 '역사결의'의 선포만으로도 이번 6중전회의 중대한 의의를 짐작할 수 있음.

- 19기 6중전회 역사결의의 두 가지 포커스(※ 중앙위원회 11.12 기자회견 참조)

① 앞의 두 '역사결의'가 주로 당의 역사적 교훈 및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세 번째 역사결의는 중공이 추구해 온 지난 백년의 성과(첫 번째 백년분투)를 총괄 정리하고(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완성), 당이 **다음 백년(두 번째 백년분투)으로 진입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히 다음 역사적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음.

②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 정치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규정했던 '중국특색사회주의'가 "18차 당대회(2012년 시진핑 집권) 이래 '신시대'로 접어들었다"("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新时代")고 밝힘으로써, **다음 역사적 단계로의 이행에 있어 시진핑 집권에 역사적 의의를 부여**.

3. 역사의 전유: 마오쩌둥—덩샤오핑—시진핑의 중공 발전 3단계

- 현재 공개된 <결의> 내용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결정사항도 노출되어 있지 않고 상징과 역사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루며, 그 해석의 방향은 '마오쩌둥-덩샤오핑-시진핑'의 3단계론임.

※ 중공 선전부에서는 향후 정식으로 정리된 문헌을 발표한다고 밝힌 상태임.

- 6중전회 공보문과 기자회견에서 다소 지루할 정도로까지 반복되고 있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선대 지도자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직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갖춤과 더불어, 이들을 계승하는 지도자(시진핑)의 역사적 권위를 얻기 위한 문구로도 기능하고 있음.

- 이는 다시 말해 이번 6중전회와 <결의>가 '역사적 해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며, 이는 바로 현재 **중국 공산당 및 사회주의의 '해석권'을 누가 거머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임.

➡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 부각되어 온 '공동부유',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전면적 소강사회' 등의 개념 및 정책은 단순히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해석권'을 손에 쥐고 있는 권력지도층이 추진하는 거대한 정치운동 혹은 역사적 전유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함.

4. 시진핑의 집권 연장 가능성

- 6중전회 공보에 등장하는 다음 문구는 시진핑의 집권 연장을 상당한 수준에서 암시하고 있음.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주위로 더욱 굳게 뭉쳐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크게 고양하며,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이 위대하게 부흥하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

- 공보 내용 중 '당중앙'에 관한 문구로, "마오쩌둥을 주요 대표자로 하는 당중앙", "덩샤오핑을 주요 대표자로 하는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둘과는 달리 시진핑이 나오는 대목에서는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이는 시진핑의 당내 지위가 단지 대표자라는 '직책' 수준을 넘어 권력구조와 정서적 차원에서 '핵심'임을 드러내는 부분임.

- 이번 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20차 당대회를 2022년 하반기 개최한다고 명확하게 못 박은 지점. 그런데 6중전회에서 시진핑에 역사적 지위를 크게 부여했다는 맥락에서 볼 때, 명확하게 공개된 정치 일정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향후 발생할 정치변동이 상당부분 준비완료되어 있고 또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

- "시진핑 동지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국정운영이념과 사상, 전략을 내놓은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창시자"라고 극찬**하여, 시진핑 사상을 지도사상의 반열에 올렸고(마오쩌둥과 같은), 이를 향후 공고히 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냄.

- 단, 이러한 평가가 시진핑의 집권 연장과 직결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지도사상 확립과 집권 연장을 동시에 추진한 사례는 아직 없었기 때문. 따라서 앞으로 시진핑의 3연임 예측에 관해서는 중국공산당이 공개할 여러 자료들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

  ➡ 예전 지도사상은 모두 사후적 평가의 차원에서 진행된 측면이 강함

- 시진핑이 현재의 국가주석 3연임으로 가지 않고, 더욱 강한 권력을 지닌 당 중앙위원회 주석직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개혁개방 이후 역대 6중전회 주요 내용

명칭	구분	주요 내용
11기 6중전회	시 기	1981.06.
	핵심문건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
	의 의	마오쩌둥의 역사적 지위와 사상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문화대혁명을 철저히 부정"하며 실사구시적 대전환을 선포
12기 6중전회	시 기	1986.09.
	핵심문건	<사회주의정신문명 건설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
	의 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개념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이론적 기초 하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이 가능함을 천명
13기 6중전회	시 기	1990.03.
	핵심문건	<당과 인민대중 간 연계 강화에 관한 결정>
	의 의	중공이 인민대중에 복무하는 노동자계급의 선봉대임을 강조하고, 인민대중 위주의 군중노선을 견지할 것을 천명
14기 6중전회	시 기	1996.10.
	핵심문건	<사회주의정신문명 건설·강화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결의>
	의 의	물질문명과 (사회주의)정신문명 간 조화를 강조하며 물질적 발전에 경도되지 않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방침을 재확인
15기 6중전회	시 기	2001.09.
	핵심문건	<당의 기풍 건설 강화 및 개선에 관한 결정>
	의 의	새 세기, 당의 역할과 지도방침이 향후 추진될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사회주의현대화 추진에 복무해야 함을 강조하며 법치와 거버넌스를 중심에 둔 '집정당'의 면모를 제시
16기 6중전회	시 기	2006.10.
	핵심문건	<사회주의조화사회 건설의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의 의	'조화사회', '민주법치', '공평정의', '안정질서' 등, 성장지상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중국식 발전양식의 밑그림 제시
17기 6중전회	시 기	2011.10.
	핵심문건	<문화체제 개혁 심화 및 사회주의문화 발전·번영의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의 의	문화강국 건설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며 중국이 향후 하드파워 뿐 아니라 소프트파워에서도 큰 매력을 배양할 것을 천명

18기 6중전회	시 기	2016.10.
	핵심문건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내정치생활에 관한 몇 가지 준칙>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 조례>
	의 의	시진핑 총서기의 당내 핵심적 지위를 강조하고 당 중앙의 감독기능을 제도화하며, 시진핑 이하 당 지도부로의 권력집중 및 그 핵심적 지위를 대내외에 천명

중공 19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일람

구분	시기	주요 내용
19기 1중전회	17.10.	○ 시진핑 총서기, 상무위원 등 최고지도부 선출 ○ '시자쥔(習家軍)'으로 불리는 시진핑 측근그룹 약진
19기 2중전회	18.01.	○ 개헌안 통과(구체적 내용은 18.03. 양회에서 의결시 공개됨) -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 명기 -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 명기 - 국가주석 연임 제한조항 삭제
19기 3중전회	18.02.	○ '시진핑 사상' 헌법 삽입 및 국가주석 연임제한 삭제 논의 ○ <당 및 국가기구 개혁방안> 제출 ○ 3월 양회에 대한 예비적 성격
19기 4중전회	19.10.	○ '중국특색사회주의' 및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강조 ○ 시진핑 후계 관련 인사변동이 부재하여, '격대지정 관행 파기', '연임제한 철폐'에 이어 시진핑 3연임이 확실시된 계기
19기 5중전회	20.10.	○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비전 제출 ○ 쌍순환 경제전략 채택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내수경제 발전목표 수립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SICS)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509호
소장실: 02-740-1650 / 연구교수실: 02-740-1651~4 / 대표전화: 02-740-1654
대표메일: sics@skku.edu / 홈페이지: http://sics.skku.edu
Copyright 2013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All rights reserved.